

김성균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1일 토요일 저녁 온라인 줌을 통해 개최된 보스톤 평통의 한문수 교수 초청 경제 강연. 온라인 강의로는 드물게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보스톤일대 주택가격 또 상승 콘도 가격은 하향세

코로나바이러스로 단독주택 선호 늘어
콘도 매물은 폭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 보스톤 주택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은 물론 매물마저 드문 반면 콘도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협회 (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s)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4.5% 오른 \$679,075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콘도 가격은 4.4% 하락한 \$592,500였다.

이 같은 현상은 구매자들이 점차 교외의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것을 반영해 단독주택은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반면, 고가의 콘도는 구매자가 적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첫주택 구입자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아 ▶▶3면으로 계속

이제는 경제와 보건, 의료 결합한 팬데믹 시대

한교수 평통 강연 "2차 팬데믹시 경제회복 더 오래 걸릴 것"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선진국 기준 바뀌어, 한국 선진국 진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가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만으로는 안되며 경제와 보건, 의료의 융합된 팬데믹 시대가 됐다” 라셀 및 노스쇼어 대학에 재임중인 한인

경제학자 한문수 교수는 7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줌으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의회가 주최한 경제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 경제는 위기인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문수 교수는 “백신의 개발 없이는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기는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회복과 침체를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먼저 현재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각종 지표를 통해 진단했다. 미시간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72.3으로 2008년 대불황 때의 64.21보다 나은 것 같지만 낙폭은 과거보다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아일린 박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한국전쟁 참전용사 묘지에 태극기 달기

참전용사들 감사전화, 문의도 쇄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서영애 평통부회장, 편집부 = 미국의 묘지에 낫선 미국인의 이름이지만 태극기가 걸려 있다면 묘지에 묻힌 이는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한국전 70주년이 되면서 생존한 참전용사보다 사망한 참전용사들이 더 많아진 현실이다. 죽음 이후에도 고마움과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7월 27일 월요일 아침 7:30분에 로웰(Lowell)에 위치한 웨스트론묘지(Westlawn Cemetery)에서 참전용사 묘지 태극기 달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 행사에는 보스톤 평통위원들과 그레이터로웰베테랑카운슬(Greater Lowell Veterans Council, GLVC), 드라컷베테랑오피스(Dracut Veterans Office, DVO)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보스톤 평통 서영애 부회장과 신영 여성분과 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7월 27일 월요일 아침 7:30분에 로웰(Lowell)에 위치한 웨스트론묘지(Westlawn Cemetery)에서 참전용사 묘지 태극기 달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원장은 GLVC와 DVO 자원봉사자들과 10주에 걸쳐 10곳의 묘지를 방문해 작고한 한국참전용사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영애 부회장은 “돌보는 이 없이 흙속에 파묻혀 있는 비석도 있어 묻혀있는 비석을 찾아내어 청소하면서 마음이 짠해온다” 라고 전했다. 신영 위원장은 기록을 남기는 사진을 찍으며 함께 돕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평통은 237명의 명단과 사진기록을 모았다. 이 기록은 몇 명의 한국 참전용사가 각 묘지에 안장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묘지관리사무실과 타운에 전달, 문서

기록에도 남길 계획이다.

보스톤 평통이 진행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묘지 태극기 달기 프로젝트는 GLVC와 DVO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도 알려졌으며 많은 참전용사들의 감사전화와 문의를 받고 있다.

보스톤 평통의 활동은 한국참전용사 가족들을 위로하고 한국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영애 부회장은 “태극기 달기 운동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분들,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해준 고마움의 메시지” 라고 밝혔다.

민주평통 제4회 통일 골든벨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도윤 평통 부회장,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는 통일문제 퀴즈대회인 제4회 통일골든벨 행사를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올해 골든벨 대회는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되는 특이한 퀴즈대회가 될 전망이다.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심을 높이고자 오픈북(Open book) 방식으로,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해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개최되는 특이한 대회 인만큼 대면 대회보다 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보스톤 평통은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통일골든벨 대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열정을 인정 고 격려해 주고자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고 밝혔다.

대상 1명은 \$400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누어 시상되며 3명에게 각 \$200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2명을 선발해, \$100씩 지급하며 장려상

는 5명을 선발, \$50씩 수여한다. 선발된 최우수 2명은 미주 결선에 참가하게 된다.

신청 마감은 8월 26일 수요일까지이며,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김도윤 부회장(413-345-2861) 장인숙 위원장 (nuacgoldenbell2010@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예상문제집과 신청서 : <https://bit.ly/nuacgoldenbell2020> (신청서 마감: 8월26일(수))

일시: 8월29일(토) 10:00 AM
시간: 오전 9:00(접수) / 대회 시작 오전 10:00

장소: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5105111041?pwd=Zkwxamd-jOCs4eVhQQVJCaX1-nVmVwQT09>

Meeting ID: 851 0511 1041
Passcode: 12345
문의: 김도윤 부회장 413-345-2861 kimdo01002@gmail.com
장인숙 위원장 nuacgoldenbell2010@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재미한국학교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일)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 교사연수회를 줌(Zoom)으로 7월 25일, 8월 1일 토요일 개최한다

가을 온라인 수업 대비한 교사연수회 개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슬기로운 교사 양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일)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 교사연수회를 줌(Zoom)으로 7월 25일, 8월 1일 토요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학습자를 돕는 미래 교육 설계(부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슬기로운 교사 양성)”라는 주제로 25일 9시부터 오후 2시 40까지, 8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양일간 개최된다.

연수회 전체 강연은 고든칼리지에 재직중인 안성호 교수가 <세계관과 초문화 정체성 (Transcultural Identity)> 주제로 25일 9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간 강연한다.

이어 커니프초등학교(Cunniff Elementary School)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제니퍼박(Jeniffer Park) 교사의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학급 운영과 온라인 수업>을 비롯 총 9개의 분반 강연이 25일, 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남일 협의회장은 “코로나바이

러스 사태로 인해 가을학기의 대면 수업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온라인 강연 대비를 초점으로 이번 가을 교사연수회를 준비했다”며 “줌 등을 활용하는 기초적인 방법에서부터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법 등까지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을 교사연수회에 참가를 원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은 남일 협의회장 (KoreanSchool.NE@gmail.com)에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강연 진행 내용은 본지 29페이지 광고 또는 보스톤코리아 닷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스톤일대 주택가격 또 상승, 콘도 가격은 하향세

▶▶1면에 이어서

파트에서 벗어나 교외주택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운타운 콘도시장의 주요 고객이던 외국 구매자들과 자녀를 떠나 보낸 노년 부부 구매자들은 점차 줄고 있다.

가격과는 달리 매물은 단독주택과 콘도 모두 줄었다. 6월 매물은 약 25년만에 가장 적은 물량을 기록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매물이 큰 폭으로 줄었다. 낮은 이자율과 주택공급량의 저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제이슨 켈 GBAR회장은 밝혔다.

“특히 중저가 단독주택은 극단적으로 수요가 많고 공급물량이 적어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거세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거래


가 거의 없어도 가격이 낮아질 기미는 없다” 고 밝혔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주택시장에 내놓으려는 매도자들의 의욕을 부추길지는 아직 의문이다.

팬데믹 기간동안 주택매매를 잠시 중단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보스톤의 주택시장은 지난 봄부터 계속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단독주택 매물은 지난해에 비해 24%만 늘었고, 콘도 매물은 무려 20%가 늘었다.

켈 회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은 구매자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올 여름은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요와 매물의 유입으로 바꿨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Schedule 2020


3/21 - 5/30(saturdays)

Class	Time
MATH IIC(SATII)	9:00 AM - 11:00 AM
CHEMISTRY(AP/SATII)	11:30 AM - 1:30 PM
BIOLOGY(AP/SATII)	2:00 PM - 4:00 PM
MATH IC(SATII)	5:00 PM - 7:00 PM

SAT Plus Summer Schedule 2020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6 - 7/24(Monday-Friday)
SAT I prep	8:00 AM - 12:00 PM 8/3 - 8/21(Monday-Friday)
Afternoon sessions	To be announced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
-198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
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선정
지난 12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수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현직 선생님들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하원서 치열한 논쟁 중인 경찰개혁법안 무엇이 담겼나

경찰 인증서 발급하는 표준훈련위(POST) 발족 경찰 한정면책권 제한, 인증 못받으면 면책권 없어 경찰 무력 사용 엄격한 제한, 다른 방법 없을 때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상원이 경찰법안을 통과시킨지 1주일 후 주 하원은 자체 경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20일 상정했다.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과 민주당 하원중진들은 22일 표결방침이었지만 21개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지면서 23일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하원 세입위는 19일 일요일 밤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세입위 안은 경찰의 한정면책특권을 비롯한 주요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20일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조정위에서 두법안의 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의회 회기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양원은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경찰개혁법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양원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회

기를 연장해 계속 협상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경우 거의 회기를 넘기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31일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턴 주요 언론들은 예측했다.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깔려 사망하면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경찰은 물론 사회 전반의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하원 경찰개혁법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내 주요타운 경찰 수뇌들은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하원의 개혁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주내 경찰 노조들도 의회의 개혁입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하원내 블랙 및 라티노 코커스가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5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핵심 쟁점내용이다.

경찰 인증제도입
이는 찰리베이커 주지사와 하원 지도부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안이다. 법안은 독립된 매사추세츠 경찰표준훈련위원회(independent Massachusetts Police Standards and Training Commission, POST)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매 3년마다 경찰 면허증(인증)을 갱신하며 과잉폭력, 차별, 유죄확정, 목격자 위협, 위조 근무시간표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각각 2명씩 선정한다. 나머지 3명은 연합으로 임명하며 매사추세츠경찰관정책그룹의 회장과 매사추세츠 경찰연합이 제출한 3명 중 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위원회를 매사추세츠 인종별 성별 인구구성 비율에 맞춰 조직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위원회의 구조는 상원과 거의 다르다. 상원은 공공안전행정청(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산하에 주지사의 임명에 의해 14인 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다. 하원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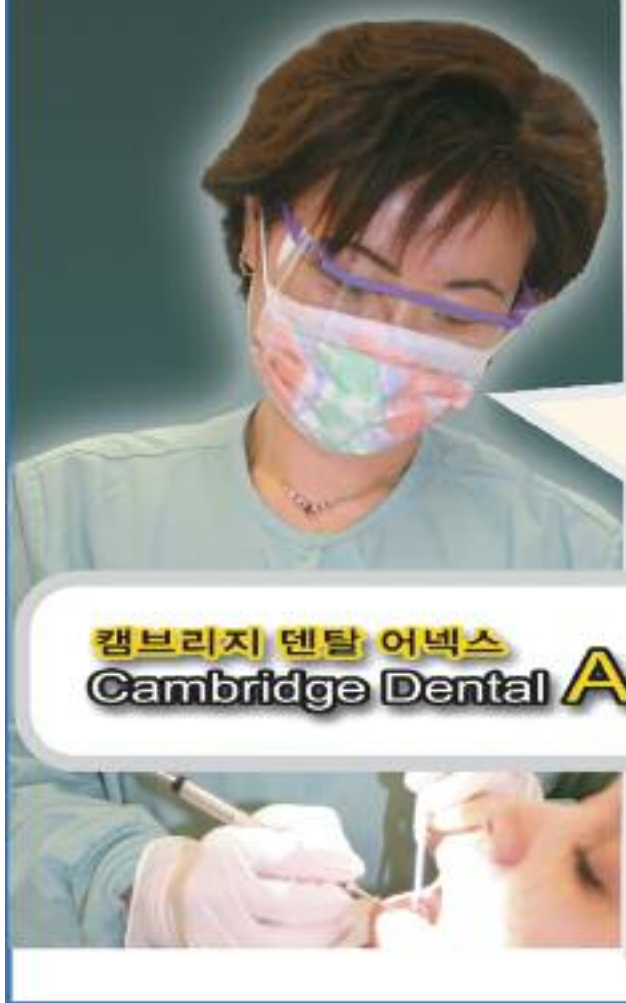
우 상원과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경찰 면책권의 제한
경찰의 권력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한정 면책권(qualified immunity)에 대해서도 하원은 상원과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찰 노조는 경찰들의 면책권의 변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어야나 프레스리 하원의원 등은 강력하게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들은 경찰과 가족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장터
SEOUL JANGTEO

서울 유명호텔의 **중화요리 Chef** 를
초빙하여 뛰어난 맛으로 보답합니다.

깊은맛의 **국밥**은
오랜 향수를 달래줍니다.

대표메뉴

- 순대국밥
- 돼지고국밥
- 소고기국밥
- 짜장면/짬뽕
- 탕수육/깐풍기
- 양장피/팔보채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구) 북경 in Allston

이제는 경제와 보건, 의료 결합한 팬데믹 시대

▶▶4면에 이어서

혁신영역에서는 경찰의 책임을 묻는데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의 개혁법안은 면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만약 경찰관이 자신들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면책권은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실제적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하기가 바늘구멍처럼 좁았었다.

하원 예결위를 통과한 하원법안은 면책권을 경찰 면허권과 연결시켰다. 경찰이 위원회로부터 면허 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바로 면책권도 상실하게 된다.

과잉폭력 방지 및 경찰 무기사용 규제

하원 법안은 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나 다른 생체 감지자료를 법 집행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차량등록국(Registry of Motor Vehicles)은 영장을 대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색을 진행하거나 면허 발급 등 위해 이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목조르기 또한 금지된다. 도주차량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중의 안전을 보호할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다른 약화된 전술을 사용해서 실패했을 때가 아닌 이상 경찰은 상대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최루가스, 고무총탄, 경찰견 등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강제 진입영장의 사용도 제한된다. 의회는 시민들의 편견없는 경찰행동을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으며, 경찰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른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경찰과 나눌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을 가했다. 학생의 이민 신분, 종교, 민족, 거주지, 갱입 여부 등은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학교 경찰의 경우 훈련 및 인증 의무를 만들고 새로운 표준훈련위원회(POST)가 학교경찰의 역할 및 학생들과 소통에 관해 양해각서를 만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경찰청장(colonel of the State Police)을 경찰 외부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큰 수준이었다. 다만 공급측면을 볼 수 있는 제조업지수는 숫자상으로 회복세에 있었다.

한 교수가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은 노동시장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미국이 경제 봉쇄정책을 단행함에 따라 완전고용보다 더 좋은 상태였던 실업률이 최대 13%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실질적실업률(U6)으로 파악했을 때 18%에 달했다고 한 교수는 지적했다.

실업률은 바로 소득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1차 경기부양 지원금에 이어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려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한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는 선진국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우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기대수명, 평균학력 등이 기준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시스템, 정부커트콜타워의 일관성, 방역, 안전, 문화, 정보기술(IT), 국민의식 등으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K방역, K게임, K팝 등으로 보건과 문



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경제에 있어서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경제 충격이 적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경제타격이 가장 적은 나라, 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달러를 찍어 낼 수 있는 나라이며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방 정부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7조달러에 가까운 돈을 풀어 국민들에게 지급한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했다.

강연 후 한 참석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풀

러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하자 한교수는 “장바구니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2%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다. 물가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소득도 반으로 줄게 된다. 물론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지만 아직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스톤 평통의 경제학 강연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으며, 평통 이승환 사무처장, 김용현 총영사 등이 참가해 축사를 전했다. 미국 전역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도 참여해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editor@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실직근로자, 전 직장보험 유지 선택기간 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해제 후 60일간 선택 가능 COBRA보험에 가입하기까지 더 시간 주어진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실업자들은 기존 직장보험에 가입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미 공영라디오(NPR)가 20일 보도했다.

코브라(COBRA)로 알려진 연방법에 따르면 실직자들은 60일 동안의 기간에 같은 건강보험을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 봄에 발표된 법에 따르면 60일간의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끝난 후부터 적용된다.

과거의 경우 60일이 지난 후 실직자들은 코브라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코브라를 선택 즉 전 직장보험을 계속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면 실직자들은 고용주가 부담하던 금액까지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2%의 행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처럼 값비싼 코브라 보험을 두고 볼 때 어떤 선택 연장이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 코브라(COBRA)는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보통 직장 및 건강 보험을 잃고 60일간 관망하는 접근 방법을 택한다. 이 기간 동안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코브라를 선택해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속 보험 커버리지를 받거나, 그동안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까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법안 하에서는 코브라(전 직장보험 연장)를 선택까지 최소한 120일간 시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굳이 아프지 않은 경우 4개월여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또는 뇌졸중 등 코브라 보험을 선택할 시간이 없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엄청난 코브라 보험료

커먼웰스 펀드가 지난 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직자 및 일시 해고자들 중 10%가 코브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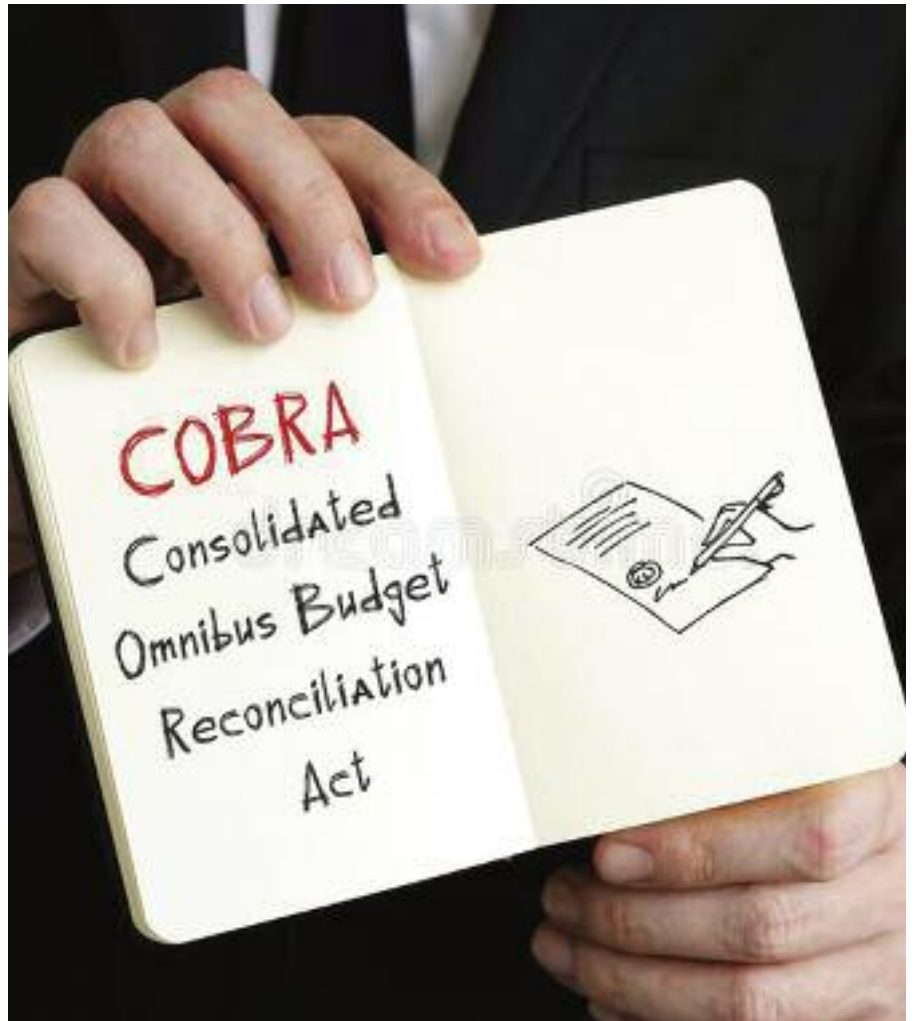
과거 직장 보험을 유지하는 장점은 새롭게 디덕터블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새로운 1차진료의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브라보험의 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비싸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48세의 한 사람은 코브라 보험을 이용해 월 \$599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만약 신규 규정에 따라 약 4개월 후 코브라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면 밀린 보험료만도 수천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고용주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구입할 수 있는 직장 보험조차 없게 된다.

병원이 건강보험료 대납 가능성도

코브라를 선택하는 실직자들은 나이가 들었거나 아픈 사람들이라고 카이저패밀리재



단은 밝혔다. 이들은 심각한 질환으로 고용주들의 전체 건강보험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코브라(COBRA)를 선호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브라 선택기간을 늘려주는 경우, 병원들이 무보험자 및 메디케어 환자 치료시 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 환자들의 코브라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부 환자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이 되지만 고용주에게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캐런 폴리츠 카이저재단 연구원은 “무보험자가 된 실직자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의 소셜워커가 코브라 자격이 된다면 코브라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며 “고용주들은 우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하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자료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B, Woburn, MA 01801

하버드, 외국 신입생 9월 하버드 캠퍼스 등교 불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외국 출신 하버드 신입생들은 올 가을 학교 캠퍼스 등교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이라고 하버드 측이 21일 밝혔다.

연방법은 외국 유학생들이 온라인으로만 미 대학 수업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가 올 가을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결정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다.

하버드 대학 라케시 쿠라나 학장은 21일 미국 일반 학생 비자 규정에 따라 신입 외국학생들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내 하버드 신입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하거나 7월 31일까지 가을학기 등록을 미룰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쿠라나 학장은 연기를 신청한 학생들은 향후 복귀하는 학기에 는 기숙사 제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는 학생들이 휴학하는 경우 기숙사 제공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경우 휴학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재정보조를 중단하거나 몇 학기 휴



학하는 등의 단점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초 하버드대학은 가을학기 40%의 학생들만 캠퍼스에 복귀하도록 하며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었다. 캠퍼스에는 신입생들과 일부 졸업반 학생들이 복귀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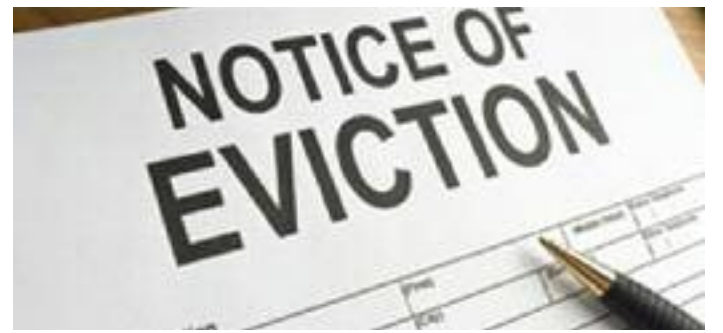
국토부는 올 봄 학교들이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외국 학생들의 경우 미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 등록한 외국학생들의 경우 미국 입국을 불허하겠다고 공

표했으나 반발이 거세자 곧 철회했었다.

쿠라나 학장은 이메일에서 외국 신입생들의 캠퍼스 복귀를 위해 온오프라인수업을 병행하는 혼합수업을 고려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이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 당국은 외국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추후 미 당국이 국경을 봉쇄할 경우 발이 묶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주지사 "세입자 축출 및 주택 압류 중단" 법 10월까지 연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8월 18일로 만료되는 세입자 축출 및 주택 압류 중단법이 60일 더 연장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1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다음달 18일 연장되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지사가 4월 서명한 이 법안은 주지사에게 90일간 모라토리움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당분간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축출당하거나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량의 세입자 축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정부에 선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주말 7월 25일 \$600불 추가 실업혜택이 중단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의 경우 렌트비 또는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었기 때문이다.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월세 소득에 의존하는 일부 소규

모 건물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세입자들은 가능한한 렌트비를 지급하고 주택소유자들은 모기지를 지급해주길 강력히 당부한다" 고 말했다.

그레이트보스톤부동산원의 그렉 배질은 자신들도 이 어려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세입자를 쫓아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연방 정부차원의 건물주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버드주택연구연합센터 연구원인 휘트니 에어굿-오브리키씨는 "세입자 축출 동결은 결코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세입자를 축출하지만 못하다는 의미이다" 며 "지금까지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세입자들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므로 대량 세입자 축출사태가 잠시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현재 베이커 행정부는 렌트 및 모기지 보조를 위해 2천만불을 배당해 놓고 위기에 몰린 세입자와 주택소유자를 돕고 있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제한조치 규정 폐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토안보부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들의 비자에 제한을 가하는 신규 규정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폐지 방침은 처음 규정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느닷없는 시점에 발표했다. 특히 보스톤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하버드와 MIT의 규

정 중지 가져분신청을 심리하던 중간에 사전 통보없이 급작스레 발표됐다.

따라서 지난 3월 미 이민단속국이 유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해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도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학생비자가 만료된 유

학생들과 온라인 100%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에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결정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안보부의 지난주 발표는 학생들과 학교 모두를 혼란에 몰아넣었으며 학교들과 미국내 18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명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자 가족을 위한 안내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민자가 정과 유식인종 가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가족들도 의료 서비스, 현금 보조, 식료품 보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이민자들이 코로나 19 검사, 예방조치, 치료를 받더라도 이민 체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의료보험이 없어도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의사가 없을 경우, 주변의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 을 참조하십시오.

3) 가족 구성원 전원이 세법상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으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정은 어른 1명당 1200달러, 미성년자 1명당 500달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CARES 법에 따르면 계약직 종사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근 제정된 팬데믹 EBT

(Pandemic EBT) 프로그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저소득 가정 자녀 이 자녀를 위한 음식을 구입하도록 돕는 주정부 실시 영양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와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 무료급식 또는 급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은 학생 1명당 114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40개주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민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경기부양 수표, 실업수당, 코로나19 검사, 치료, 또는 팬데믹 EBT는 이민국에서 규정한 '공적 부조'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에 제공되는 연방 원조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각 지역마다 이민자 가정을 위한 주정부, 지역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 를 검색한 후, 해당

이민자 가족도 품격있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PROTECTFAMILIES



지역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이 안내문은 Protecting Immigrant Families에서 제공합니다.

이 단체는 연방, 주,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서비스, 식료품 보조, 복지 프

그램, 경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치과, 좋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요가송의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YOGA SONG HAYEON

우울함을 없애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침요가

특별한 걱정과 근심없이 늘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우리의 마음, 기분, 감정은 하루에도 몇번씩 변화를 겪습니다. 이유없이 혹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이지만 그럴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구요. 그래서 이 번주는 우울함, 근심 걱정 등으로 가슴이 답답할때 상쾌한 기분으로 전환시켜주는 요가동작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초보자를 위한 쉬운 동작부터 조금 난이도 있는 동작까지 함께 알려드릴테니 오늘 본인의 에너지, 기운에 맞춰 자유롭게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스트레스없이 건강하게 호흡과 함께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굳이 아침요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위한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시간을 내어 조금씩 따라하시다보면 구부정한 자세 교정과 유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 영상과 함께 꼭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남겨주세요.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MORNING YOGA 편을 찾아 보시면 더욱 다양한 동작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 HAYEON 을 검색해주세요)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활자세 변형입니다.

구부정해지기 쉬운 등과 앞으로 말린 어깨를 펴주고 타이트한 허벅지 앞면을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STEP 1. : 네발기기 자세(Table Top)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보내고 왼발을 들어 사이드 플랭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STEP 2. : 왼손으로 바닥을 힘있게 밀고 복부를 끌어당겨 중심을 잡은 후 천천히 왼무릎을 접어 등 뒤에서 발을 잡아봅니다.. (영상을 참조하세요)

STEP 3. : 중심이 잡힌 후에는 발을 조금씩 엉덩이에서 멀게 가져가 어깨와 가슴이 더 시원하게 열리도록 해줍니다.

POINT! : 복부의 힘을 사용해야 허리를 다치지 않아요. 무리해서 허리를 꺾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번째는 반달자세 (Half Moon Pose)입니다.

STEP 1. : 먼저 전사 2자세(앞무릎을 구부리고 뒷다리를 편 스탠딩자세)를 취해줍니다.

STEP 2. : 체중을 앞에 있는 오른발에 싣고 오른 손을 매트 앞 오른쪽으로 가져가 바닥을 짚습니다. 사진과 같이 요가 블록이나 두꺼운 책으로 손을 지지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무릎과 발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STEP 3. : 앞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의 발을 천천히 때 균형을 잡아줍니다. 가능하시다면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앞무릎을 펴주세요. 왼다리는 뒤로 뻗고 왼손은 하늘 위로 뻗어줍니다.



STEP 4. : 숙련자의 경우는, 왼무릎을 접어 등뒤에서 왼손으로 발을 잡아주세요. 이때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는 발로 비단을 힘차게 밀고 코어의 힘을 사용해주세요.

POINT! : 지지하고 있는 발앞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쉬운데요, 골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른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보내며 골반, 무릎, 발의 정렬을 맞춰주도록 해주세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TOTAL Body Morning Yoga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고, 궁금한점은 영상 하단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30분 영상이지만 막상 시작해 하다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갈거예요. 중간에 힘든 동작이 있으면 과감히 건너뛰고 하셔도 되니 부담없이 행복하게 또 자유롭게 수련해주세요. 요가는 잘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좀더 건강해지려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니 중간중간 실수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도 가끔 넘어지고 실수한답니다 ^^ 이번주도 요가송과 함께 더 신나고 활기찬 한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당신의 값진 하루하루를 늘 응원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코로나바이러스 특수 케이프코드 여름철 렌트하우스 불티

호텔 기피한 피서객 대부분의 렌트하우스 9월까지 예약 완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케이프코드 여름철 렌트하우스들이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6월 8일 2단계 경제 재개가 시작되고 호텔 및 단기 렌트가 허용되면서 케이프코드 아일랜드 렌트하우스들은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버렸다.

단 몇주만에 대부분의 여름철 렌트하우스가 모두 예약됐지만 지난 3,4월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4월엔 케이프코드 여름철 렌트하우스의 취소 신청이 잇따라 올상이었다.

그러나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여름철 단기 렌트하우스에 오히려 득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가족들만의 휴가를 케이프코드 및 주변 섬 지역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다. 이미 2019년보다 더 활황인 상

태를 맞고 있다.

케이프코드 아일랜드 지역의 단기 렌트 예약 웹사이트인 We-NeedAVacation.com에 따르면 총 예약율은 지난해보다 24%나 높아졌다. 공실율은 5% 이하로 거의 완판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 지역 호텔들은 3,4월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호텔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단기 렌트하우스와 같은 호황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렌트하우스는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같은 수준의 렌트비를 부과하고 있다.

미셸 누넌씨는 데니스항구에 바다에 인접한 3하우스복합단지 소유해 1주당 \$12,000에 렌트하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봄 그녀는 모든 예약이 취소되는



약재를 겪었으나 경제재개 이후 순식간에 모든 예약이 끝나버렸다.

누넌씨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에 한 통 이상 예약 문의가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이용을 꺼려한다. 예약했던 사람 중 두 사람은 과거 외국을 여행했는데 올해는 매사추세츠에 남기로 했다”고 이야기 했다.

단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스톤 및 뉴욕의 재택근로자들도 케이프코드 아일랜드 지

역 여름 단기 렌트하우스의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 렌트를 신청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무선인터넷의 속도를 우선적으로 묻는다.

매스피에 위치한 윌로우밴드의 경우 한달 단위로 렌트를 대여하고 있는데 한달에 \$50,000을 부과하며 골프비 등 기타 수수료는 따로 받고 있다.

윌로우밴드의 소유주 데이비드 사우스위스씨는 “4베드룸에 수영장이 있는 집이면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1면업뉴스 1미션협 회원사 1세한연 회원사



함께 이겨요! 함께 지켜요!

지금은 모두가 힘내 우리를 지켜야 할 시간
보스톤 정관장이 함께 합니다!



영업시간안내
10:30am - 6pm

배송주문안내
매장전화 : 781-238-0303
문자 : 312-493-6677
이메일 : kgcboston@gmail.com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매시
정관장 홍삼정 30g 증정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미 정부, 화이자 백신 6억회분 미리 확보

복지부 "미국인 무료로 접종"...이르면 내주 대규모 3상 임상시험 돌입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또 대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리 확보했다.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22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19억5천만달러(약 2조3천억원)에 코로나19 백신 인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 정부는 양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BNT162의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1억회 투여분을 우선 넘겨받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이 백신을 1인당 2회 투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5천만명 접종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1인당 접종 비용은 39달러(약 4만7천원)가 된다.

미 정부는 또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 5억회분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옵션을 이번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 추가 매입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백신이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을 경우 곧바로 미 전역으로 백신이 배달되며, 미국인들은 "공짜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했다.

바이오엔테크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기술과 화이자의 글로벌 개발·제조 역량을 결합해 만든 BNT162 백신은 기존의 다른 백신에 비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화이자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이 실험용 백신은 1·2상 임상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생성하는 효과를 보였다.

당국의 승인을 얻는대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3만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세계에서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150종의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은 가장 진도가 빠른 선두권에 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최소 4 종류의 실험용 백신을 시험 중이며, 3상 시험도 성공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규제 당국에 비상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1억명 접종분을 생산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3억명분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백신 개발

을 지원하고 가능성 높은 백신을 입도선매하는 '위프스피드 프로그램' 작전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날 계약으로 미국인들을 위한 백신 확보량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에 따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하는 백신 3억회분을 12억달러에 미리 확보했고, 미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에는 16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기업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에도 4억8천600만달러, 4억5천600만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백신 경쟁전에 나선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 20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3천만회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회사의 백신 총 2억3천만회분을 확보해냈다.

firstcircle@yna.co.kr



빌 게이츠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70억회분 이상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70억회분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년 전부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경고해온 게이츠는 22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어떤 백신도 1회 접종으로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게이츠는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전면 차단하려면 세계 인구의 70~8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또 최종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식품의약품(FDA)이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 시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FDA의 현 지침은 매우 적절하다"면서 신뢰를 드러냈다.

게이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발언과 대처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치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가깝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거의 모든 수치상에서 최악의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리더십의 부재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대립각을 세운 정부, 낮은 수준의 마스크 착용률을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퇴치에 3억달러(약 3천600억원)를 기부했다.

한편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바이오기업 모더나는 다음 주부터 3만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sykim@yna.co.kr

신신마트 배달 서비스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포틀랜드 시에서 과격한 진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연방 진압요원들

트럼프 정부, 연방요원 동원 '묻지마체포'

'동상보호'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무차별진압... "공권력 남용" 거센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차별 혐의시위'에 대해 무차별적인 진압에 나서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50일가량 도심 시위가 이어 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는 소속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치안 인력까지 투입됐다고 미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과 무관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가 주도하는 이른바 '신속 대응팀' 소속으로, 세관국경보호국(CBP)·이민세관단속국(ICE)·교통안전청(TSA)·해양경비대 인력 2천여명을 아우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인종차별 혐의 시위대의 동상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 내 동상·기념물·유적 또

는 정부 소유 자산을 훼손·파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법에 따라 최대한도에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동상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미 전역에 걸쳐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인사의 동상들이 철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후로 연방 인력들이 속속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비롯해 워싱턴주 시애틀, 워싱턴 D.C. 등에 이들 요원이 배치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경찰 표식이 없는 '일반' 차량에서 내린 이들 요원은 아무런 범죄 혐의 없이도 무차별적으로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틀랜드 시위에 참여한 마크 페티본(29)은 오리건 공영방송(OPB)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새벽 2

시 무렵 집으로 걸어가던 중, 어떤 마크도 없는 밴에서 위장복 차림의 4명이 뛰어내려 나를 붙잡아 차량으로 끌고갔다"면서 "아무 이유 없이 붙잡힌 것 같다. 파시즘 체제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설명한 뒤 체포하는 통상의 절차와는 달리, 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연방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NYT는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주 주지사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리에서 연방 요원들을 즉각 철수시키라고 국토안보부에 촉구했다.

데드 윌러 포틀랜드시장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고, 오리건주 엘린 로젠블럼 검찰총장은 불법적인 진압 방식을 동원했다면서 연방 요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un@yna.co.kr

플로이드 살해한 전 경찰관 부부, 소득 5억5천만원 숨겨 탈세

부수입 누락하고 세율 낮은 곳에 차량 허위 등록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살해했던 미국의 전 경찰관과 그의 부인이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카운티 검찰은 플로이드를 살해한 데릭 쇼빈 전 경관과 별거 중인 그의 아내 켈리 쇼빈을 9건의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쇼빈 부부가 2014~2019년 46만4천433달러(5억5천69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2만1천853달러(2천620만 원)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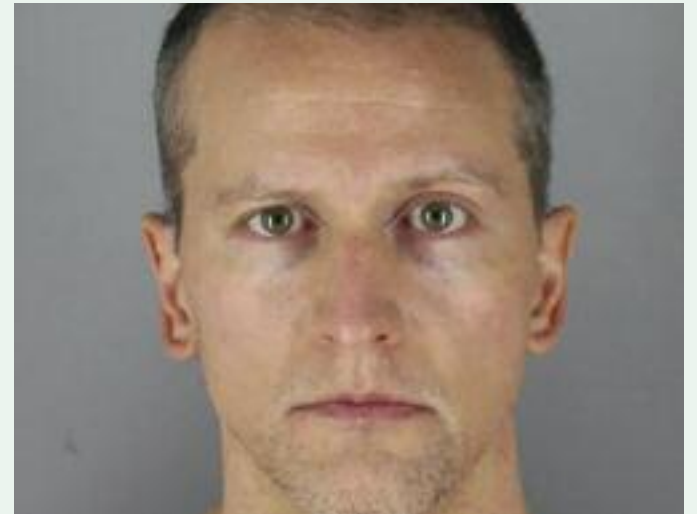
당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관이었던 쇼빈은 댄스 클럽과 술집 등에서 경비 업무를 서

며 돈을 벌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부인은 사진 촬영 부업을 했으나 두 사람은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 미네소타주에서 신형 BMW를 10만230달러(1억2천만원)에 구매해 현지에서 운전하면서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플로리다주에 자신의 차량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쇼빈 부부는 플로리다주 올랜도 외곽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가산세를 합쳐 3만7천868달러(4천641만 원)를 납부해야 하며 탈세 행위 1건당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1천19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jamin74@yna.co.kr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기름 부은 이재명...여권 '무공천' 논란 확산

이낙연 "먼저 끄집어내 월가월부"...이재명 비판, 이해찬도 "지금 얘기할 필요 있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대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자리를 채울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유권자 약속 지켜야", "고작 임기 1년" 의견 확산

21일 당내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공개 제기한 무공천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전날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박원순, 오거돈 사건에 대해 "중대비리가 아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궐선거로 뽑히는 시장의 임기가 불과 1년이라는 점에서 무공천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

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성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을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은 쪼잔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일년짜리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대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맞다"고 동조했다.

◇ 김부겸·박주민 "현실 무시 못해", 이낙연 "왜 먼저 끄집어내나"

하지만 두 지역을 합쳐 1천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실상의 '미니 대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아직까지는 주류인 상황이다.

당 대표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수도권과 제2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는 건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천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텐데, 먼저 끄집어내 당내에서 월가월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며 이 지사의 처신을 애들러 비판했다.

이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



민 최고위원도 "과거 부산 공천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손바닥 뒤집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주자들도 대체로 찬성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법적 가치인 참정

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도 "비리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당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 이해찬 "지금 얘기할 필요 있나"...논란에 제동

지도부에서도 무공천론에 쓴소리가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지금 (공천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공천권은 다음 지도부에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는 평소 정치인은 어떠한 사안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기에 이 지사를 질타한 것까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이 지사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생환후 첫 행사에 금배지 '복적'...달라진 위상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기자 = 기사화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대법원 판결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행사를 열었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세 불리기에 나섰다 해석 속에 여권의 많은 인사가 몰려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린 '소재·부품·장비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지도부 회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이규민 의원을 포함, 경기도 지역구를 위주로 당 소속 국회의원만 약 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재선 중에서 권철승 김한정 백혜련 임종성 의원, 초선 중에서 고영인 김남국 양정숙 이동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용우 정찬민 한준호 홍기원 의원 등이 얼굴을 비춰 이 지사와 스킨십을 나눴다.

경기 고양갑이 지역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 지사 옆 테이블에 앉아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치적 동지인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심상정 대표도 "더 소신껏 경기도를 잘 이끌어가게

돼 축하한다"고 덕담했다.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에 이르기까지 지역행정 위주의 정치경력을 쌓아온 이 지사는 다른 잠룡들과 비교해 원내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향후 경기도정과 정책을 고리로 여의도에 접점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ULY 24th - JULY 30th, 2020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골드키위 \$19.99 BOX</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Green Cabbage 양배추 \$0.79 LB</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Korean Melon 황금 샤라기 참외 \$1.99 LB</p>	<p>*** PREMIUM QUALITY</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1.49 LB</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0.99 EA.</p>
<p>Iceberg Lettuce 양상추 2\$3 EA./FOR</p>	<p>White Nectarine 백천도 \$2.99 LB</p>	<p>Packed Garlic 팩마늘 2\$3 5CNT/ PKG./FOR</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House Cucumber 하우스 오이 EA. \$0.9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3종 SOFT/SILKEN/FIRM 14-16OZ./PKG. \$1.29</p>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eef Tenderloin 생 소안심 WHOLE PIECE/LB \$7.99</p>	<p>U.S.D.A. CHOICE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낙엽살 스테이크) LB \$8.99</p>
<p>Fresh Boneless Chicken Thigh 뼈없는 생 닭사태 LB \$1.99</p>	<p>Frozen Sliced Beef Short Plate 슬라이스 냉동 삼겹 양지 LB \$8.99</p>
<p>Marinated BBQ Pork Back Rib 바베큐 양념 돼지 등갈비 WHOLE PIECE/ 1.1 LBS./PKG. \$6.99</p>	<p>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5.99</p>

싱 선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SUHYUP Frozen Cleaned Rock Sole 수협 손질 냉동 가자미 150/200 Size - LB \$3.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SUHYUP Frozen Tongyoung Marine Eel Fillet 수협 통발로 잡은 바다장어 12 OZ./PKG. \$10.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Frozen Golden Pompano 냉동 금병어 600/800 Size - LB \$3.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D&T Frozen Whole Boiled Crawfish D&T 만물가재 10/15 Size/5 LB - PKG. \$24.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TONGTONGBAY Frozen Dried Pollack 통통배 냉동 코다리 1.5 LB/PKG. \$5.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6.99 HOT SALE</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p> <p>NIGATA Koshihikari Premium Short Grain Rice 니가타 코시히카리 쌀 \$24.99 11 LB</p>	<p>H MART SMART CARD ONLY</p> <p>KWANGCHUN Green Tea Seaweed 광천 녹차김/청파래김 선물세트 \$10.99 ORI./Green Laver 0.71 OZ. X 10EA./PKG.</p>
<p>H MART SMART CARD ONLY</p> <p>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골뱅이 통조림 \$5.99 14.1 OZ.</p>	<p>H MART SMART CARD ONLY</p> <p>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캔) \$14.99 56 FL.OZ.</p>

<p>HARU HARU Medium Grain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3.99</p>	<p>SEMPIO Naturally Brewed Soy Sauce 샘표 맑은 조선 간장 31.45 FL.OZ. \$3.99</p>	<p>KEWPIC Dressing Deep Roasted Sesame Sauce 큐피 참깨 드레싱 8 FL.OZ. \$2.99</p>	<p>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후이퐁 스킨라차 소스 28 FL.OZ. \$2.99</p>	<p>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5.99</p>
<p>CJ Cold Noodle CJ 동치미 물냉면/함흥 바빔냉면 WATERY RADISH KIMCHI-2LB/ RED PEPPER PASTE-1LB \$3.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OZ. X 6EA./PKG. \$9.99</p>	<p>GOOD FOOD FACTORY Corn Dogs/Hotdogs 키큰아이 핫도그 MOZZARELLA/CRISPY MOZZARELLA/POTATO CHEESE 5.29 OZ. \$6.99 FROZEN/14.11 OZ.</p>	<p>ORGANIC FARM Roasted Chestnut 유기농장 까먹는 군밤 5.29 OZ. 2\$3 EA./FOR </p>	<p>HAITAI Peanut Crunch 해태 맛동산 10.58 OZ. \$2.99</p>
<p>CJ BEKSUL Plum Syrup 백설 매실청 36.15 FL.OZ. \$7.99</p>	<p>KWANG DONG Vita 500 Sparkling Drink 광동 비타500 스파클링 250ML X 6 CANS /PKG. \$3.99</p>	<p>GLASS LOCK Glass Food Container 글라스락 직사각 칸칸이 푸드 컨테이너 \$7.49 -\$10.99 REC-2SPACE 920ML</p>	<p>HEARTY Hand Sanitizer HEARTY 튜브형 손소독제 80ML \$2.49 -\$3.49</p>	<p>KüHAUS 5-Tier Food Dehydrator 쿠하우스 5단 핏팅 음식건조기 BLACK/ROUND -\$42.99 \$29.99</p>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표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OUR AGENTS



이 제 봉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



애나 정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Susan Ahn

339.224.1512

susa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 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김 원 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 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트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영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영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연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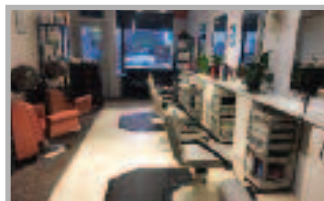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Asking \$45,000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sking \$320,000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하게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영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영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채널A 이동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대화 녹음파일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단서로 꼽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 (35)와 한동훈 검사장(47)의 대화 녹음파일이 22일(한국시간) 공개됐다.

다음은 녹취록 전문.

<생략-검경수사권 분리 내용>

이 기자 :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게 □□□□(타 언론사를 지칭)에 B..은 흑시 청와대에서 흘린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게 돼요 보니까.

<중략 -프로포폴 관련 내용>

이 기자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이 기자 : 잘 하실까요?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문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이 기자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 플러스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 기자 : 예.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중략>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이 기자 : 네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 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야 △△△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이야.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이 기자 :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거랑 F..이 공수처도 얘기 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지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 그런 애들이 지금 이끌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기자 : A.. 장관도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이 기자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풀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 기자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 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거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지 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이 기자 : 옛날에 VIK영상보니까 한국당에 윤영석에 양산 쪽 그아저 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 기자 : 이건 뭐야. 분권형 형사 사법절차.

한동훈 : 뭘 보도자료를 또 냈어? 이 기자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뭘 소리냐 진짜. 백 기자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입장을 냈네요. 올릴까요? 범조직 방에다가.

이 기자 : B..? 백 기자 : 네 이 기자 : 올려 이 기자 : (보도자료 읽는 중)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동훈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 버리면 입증하기 적절치 않아.

이 기자 :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지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뭘 △△△야. 이 기자 :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단 문단별 다...

한동훈 : 아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는데

이 기자 :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

는 건 좀 그렇다.

한동훈 : △△△야. G..하고 하라 그래. 전임 대통령하고 하든가.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A..만 신난 거야.

이 기자 :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거 같은데.

한동훈 : 에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겠어? H.., F..이지 무슨 소리아. 이게 그러면 갑자기 A..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쿡쿡 집어서 내. 당연히 저쪽이지.

이 기자 : I..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한동훈 :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 기자 :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걸로 자기들이 당할 텐데 정말 어떤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 △△ △△ △△이야 저게?

이 기자 : 예전에 댓글수사 때요. 2013년 댓글 수사 때 그때도 J.. 장관이었지. J.. 장관이.

한동훈 : 이렇게까진 안 했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통기고 통기고 통기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 기자 : 그 때 보면 A..가 댓글 수사 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시간이 돌고 도는구나.

한동훈 : 그 때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이 기자 : 그래서 요즘 기사를 쓸 때 사실 이전에 수사가 막 돌아갈 때는 수사 내용 말하고 매일 매일 괴로운 날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의견 대립 막.

한동훈 : 뭘 그냥 노골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뭐 제3의 장소에서 논의한다. 제3은 개뿔, 대검 반대 의사를 총장에 밝힌 거야 저쪽에다가. 무슨 제3의 안이야. 제3안의 안이 어딤어.

이 기자 : 법무부에서 오늘 얘기 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부산 가시느라...

한동훈 : △△△△ 진짜.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뭘 소리아. 아니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자나 전혀. 뒤 통수처 가지고 무슨 그거 한 줄 넣어서 총장하고 얘기했다는... △△ △△△이야.

백 기자 : 협의를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동훈 : △△△△ 진짜. 그러면 시간이 그동안 많은데 왜 사전에 얘

기 안 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 △△들이 징징거리. 개기든가 아니면 확 K..처럼 △△주든가.

이 기자 : 아니 L.. 국장님은 좀 M..하고는 다를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한동훈 : 비슷해 이 기자 : 그때 뭐 지난주인가 A..가 헛소리하고 간 날 있잖아요. A..가 △△하니까. 중간에 계속 본인이 끼어드셔서.

한동훈 : 본인이 끼어드셔서 얘기 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야.

이 기자 :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지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이 기자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 기자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자나. 뭐냐 그제. 신라젠에 투입 안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짝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백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자 : 그렇지.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이 기자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자세히 안 알아보았는데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이 기자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랐다는데. 왜 놀래나 대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이 기자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 요.

한동훈 : 그렇지. 왜냐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거는.

이 기자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

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가 그거 재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 재네 플레이 못 해.

이 기자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 기자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밀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 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 기자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이 기자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은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 되려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백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안 들림)

이 기자 :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여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겁이 많아 이 사람은.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 기자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재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 기자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백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백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 기자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이 기자 : 아 지금이요. 저 방금도 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이 기자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한동훈 :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 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6.25 한국전쟁 70주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묘비에 태극기 꽃기 행사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추모합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회장 한선우)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묘지에 태극기 꽃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7:30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위원들과 Greater Lowell Veterans Council(CLVC), Dracut veterans office의 volunteers들이 함께 Lowell에 위치한 Westlawn Cemetery에서 참전용사 묘지에 태극기달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날짜 : 7월 27일
시간 : 오전 7시 30분
장소 : Westlawn Cemetery
주소 : 215 Boston Rd. Lowell, MA 0185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 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성안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Theophy) Parish of Boston, MA

주일 미사 (Sunday)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QR 코드 스캔
<https://bit.ly/2JJ6ZcT>

5월 31일부터 주일 미사는 본당에서 드리고 유튜브
브를 통하여 동시에 스트리밍합니다. 평일미사는
유튜브를 통하여 스트리밍만 합니다. COVID-19
관련 신자분들 유의사항은 본당 홈페이지와 페이
스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clubchurch.org
www.facebook.com/stdavclub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공요격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5 Year Warranty

바디프렌드 메디컬 R&D 센터는 인류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위해 오감초격차(기술/디자인/품질/서비스/고객만족)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10년 더 건강하게! BTS in BODYFRIEND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구입시
OLD 안마의자 트레이드인 +
LG STYLER or LG 공기청정기 파격 세일!
★ 행사기간: 2020년 7월 30일까지 ★

담채 김치냉장고

FREE SHIPPING
Only valid for deliveries in NY, NJ, PA, MA, MD, and VA

담채® 마망 스탠드 418L	담채® 티탄 스탠드 418L	담채® 화이트 스탠드 330L	미니프티형 100L \$70.87 +Tax/12month	뚜껑형 120L \$66.67 +Tax/12month
			뚜껑형 180L \$95.84 +Tax/12month	뚜껑형 220L \$125.00 +Tax/12month

예약후 방문 하시는 분 \$200 이상 구매시 휴대용 선풍기 무료 증정! 선착순 300명

Appointment Only
예약전화
781.862.6867

HITRONS™
MA Showroom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www.hitrons.com



* 월무이자 특별스페셜은 Synchrony Financial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용확인이 필요하며 Synchrony Financial 적격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모든 고객이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SCHOOL BUFFER ZONES SHACKLE COMMUNITIES OF COLOR FROM ECONOMIC FREEDOM

By Linda Champion

Creating drug-free school buffer zones sounds like a good idea. However, the consequences and disparate impacts of these zones complete with the high-stakes mandatory minimum sentences that accompany them led to the mass incarceration of thousands of Black and Brown residents. Now, this same failed policy is being used to prevent communities of color from opening cannabis retail shops in their own neighborhoods—denying economic opportunities marijuana legalization was designed to create.

As a former Suffolk County prosecutor, I can speak first-hand to the impacts school zones have had on our families. The perverse justification of, “think of our (white) kids,” provided cover for law enforcement to heavily punish and incarcerate predominately Black and Brown kids who lived and were caught within these “sentencing enhancement zones.” In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smoking a joint on your “school-zoned” tenement stoop led to possession, arrest, conviction and mandatory-minimum sentences. Smoking a joint on your front porch of leafy more spread out suburbs was just “kids being kids.”

Same behavior; disparate impact.

While Boston’s school zones have been largely reformed and eliminated, “sensitive use” buffers continue to materially block Black and Brown people from opportunities to create generational wealth in Boston’s new cannabis industry. From the Failed War on Drugs and the resulting prisons filled with our youth, we have seen the profoundly disparate human and societal toll of school buffer zones—zones that our communities of color overwhelmingly fall within.

Speaking at the signing of Boston’s new cannabis ordinance, City Council President Kim Janey said, “we have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dismantle this pipeline to prison that continues to criminalize Black and Brown people.” Amen.

Today, Boston prohibits even the submission of an adult-use application located within 500 feet of a public or private school serving grades K-12 under the false pretense that the prohibition is a requirement of state law.

This is fa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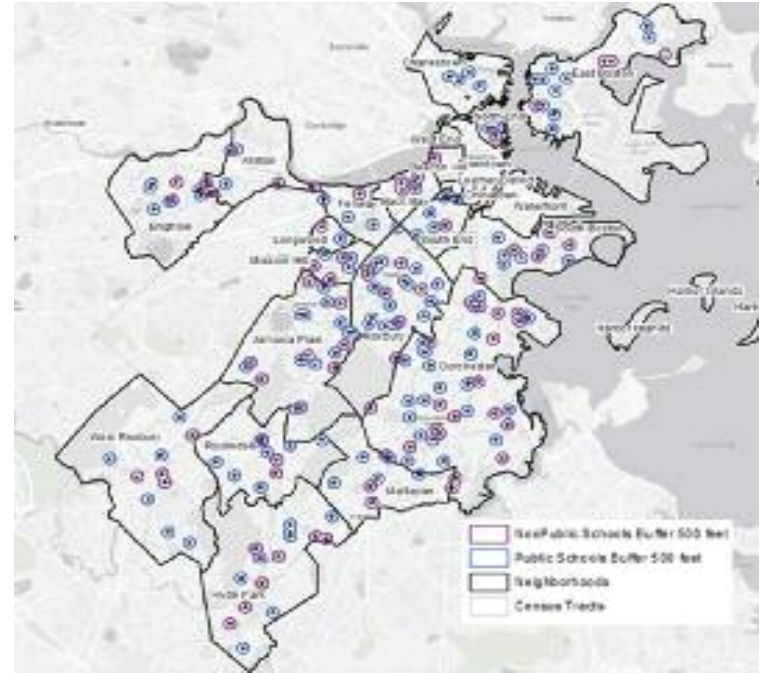
Boston does have a choice and the City Council has an obligation to support communities of color by creating buffers that work for all residents.

State law allows Boston to reduce buffers by ordinance or by-

law. The State’s Cannabis Control Commission has itself acknowledged that overly strict zoning rules and large buffer zones sharply limit the number of parcels available to potential operators, favoring large corporations with substantial financial resources while disproportionately harming smaller, local companies. Reinstating school buffer zones will reduce viable adult-use sites and significantly raise costs (and the stakes) for Black and Brown entrepreneurs. Today, liquor stores are often located in “school zones”. Why should cannabis be treated any differently? Just like liquor stores and bars, the City Council should ensure communities of color have a choice as to which cannabis companies should operate in our neighborhoods.

Communities like Cambridge and Somerville have already successfully reduced school buffers to 300-feet, recognizing the restorative justice intended by cannabis legalization and how these overly restrictive buffers run counter to those goals.

Like in Cambridge and Somerville, the Boston City Council also has a choice: to choose to respect the self-determination of communities of color and recognize that we, as people of color, are able to advocate and choose for



ourselves.

As a Black woman, I have been proud to stand shoulder-to-shoulder with so many of our residents as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has swelled to become the single largest, organized protest in modern history. While protests can inspire, our policy choices make them meaningful. The Boston City Council has the opportunity to do just this; by acknowledging the failure of school buffer zones that shackled our communities.

Opportunities to create generational wealth have eluded communities of color. The economic opportunity a vibrant cannabis industry can provide to our Black

and Brown residents will not be taken from us this time.

Because of Mayor Walsh and Councilor Janey, we can celebrate locally and nationally the symbolism of the cannabis ordinance’s passage. However, without further urgent action by the City Council, this ordinance will be a symbol of an unfulfilled promise, rather than a symbol of true restorative justice.

Linda Champion is a Black Korean American attorney and former Suffolk County prosecutor. She serves as an Advisor to the President of Whittier Street Health Center, Board Vice-Chair to CUE Realty,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Urban Edge and an Advisor to Boston Showstoppers.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vid - 19" Real Estate Market Update

요즘 여러분들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매매가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집은 볼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을 내놓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3월부터 Covid - 19로 다운 되었던 사회가 오늘로서 Phase 3까지 풀린다. 하지만 다른주는 최대에 확진자수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이다. 오늘은 정확히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 현황과 앞으로의 마켓이 어떠 할지에 대한 예

측을 해 보려고 한다. 3월에 Stay Home 오더가 내려지고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한다.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이때에 집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곳이 되어 버렸다. Rental market은 물론이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특별히 Covid 19로 인해 내려간 용자율은 많은 바이어들에게 좋은 조건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나오는 집에 수가 적다는 것이다. 꼭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

서 집을 파실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많은 집이 나오자마자 팔리는게 현실이다. 덧붙여서 조금 싸게 나왔다 싶으면 오퍼가 여러개 들어 오게 지금 추세다. 가격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10% 이상 가격을 올려야 살 수 있는게 현재 상황이다.

Inspection은 물론이고 Mortgage contingency 마저도 빼야 살 수 있는게 지금에 현실이다.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태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전을 알아야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7년간 서부프라임이 잠잠해지고 나서 부동산 마켓을 너무나도 좋았다. 낮은 이자율과 경제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했다. Covid 19 오기전 3월전에도 Seller's Market 이었다. 이 Covid 19이 어떻게 진행 되거나 끝날지는 몰라도 난 부동산 시장이 나빠질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항상 Supply Demand를 봐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만약 용자율이 많이 올라갈 경우는 애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Covid 19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한후에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 가지는 않을것 같다.

집을 꼭 사셔야 하는 분은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어떻게 하면 Inspection과 Mortgage Contingency 를 waiver 할 수 있는지를 꼭 상담해 보고 이 시간에 맞게 대처하시기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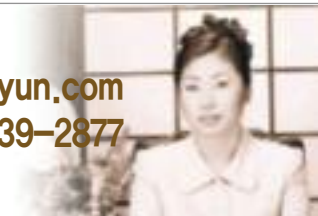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7월 26일 - 8월 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내일의 재산은 건강</p> <p>●운수: 일이 지연되고 짜증나더라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되어줍니다. ●금전: 내일의 재산은 건강입니다. 재물을 얻고 건강을 잃는다면 부질없는 것이니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세요. ●애정: 평소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주위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기가 힘들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소띠 생각이 필요한</p> <p>●운수: 한때는 어려움에 부딪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갖도록 하세요. ●금전: 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 ●애정: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생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구태여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9, 1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범띠 이심전심이니</p> <p>●운수: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세요. ●금전: 현상유지에 만족하도록 하세요. 크게 손해 보는 시기는 아니지만 크게 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시기라 하겠습니다. ●애정: 이심전심이니 서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자신의 감정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p>
<p>토끼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p> <p>●운수: 주위 사람이 협조자가 되어주니 일의 성취가 쉬울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니 쓸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금전: 좋은 문서도 손에 쥐게 되는 운이기도 하니 발전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운도 나아집니다. ●애정: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31일 길일. 29, 1일 주의.</p>	<p>용띠 자신감을 가지고</p> <p>●운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니 더 반가울 것입니다.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금전: 가까운 친구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찾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상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뱀띠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p> <p>●운수: 아랫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로 대할 때입니다. 진정한 강자라면 약자를 끌어안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금전: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크나큰 변화가 없는 시기이지만 노력한 만큼의 재물이 늘 것입니다. ●애정: 마음은 있으나 적당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군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p>
<p>말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p> <p>●운수: 자신감을 얻고 효과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까이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는 귀인이 있습니다. ●금전: 남을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내야 자신에게 많은 이로움이 돌아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심신이 편안해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p>	<p>양띠 적당히 선을 그어야</p> <p>●운수: 신중해야 할 상황과 급하게 서둘러야 할 상황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이 제일 큰 적인 때입니다. ●금전: 책임질 수 없고 실행력이 없는 말뿐인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금전문제에 있어 신용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애정: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1일 길일. 30, 1일 주의.</p>	<p>원숭이띠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p> <p>●운수: 항상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체크하고 또 체크하도록 하세요.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같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세요. ●애정: 내 맘대로 상대를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리한 것 같아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1일 길일. 26, 30일 주의.</p>
<p>닭띠 흑백을 분간하지 못해</p> <p>●운수: 잠시 관망하도록 하세요. 흑백을 분간하지 못해서 혼돈이 생기는 때입니다. ●금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없다고 하듯이 계획은 크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었습니다. 큰 실속이 없이 지나갑니다. ●애정: 두 사람의 사랑이 점차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군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리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29일 길일. 26, 1일 주의.</p>	<p>개띠 정확하게 해두어야</p> <p>●운수: 법적인 문제, 문서, 서류 처리 등을 정확하게 해두세요.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본업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수입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애정: 정을 베풀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주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깁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8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돼지띠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p> <p>●운수: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잘 살리면 승산이 있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니 자신감으로 대처하도록 하세요. ●금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운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가까운 거리에 당신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1일 길일. 28, 30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코미디 도전한 곽도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웃긴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독종 검사(아수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강철비), 전 중앙정보부장(남산의 부장들) 등 최근작들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고위공직자 역할로 각인된 배우 곽도원이 허술한 시골 형사로 코미디에 도전했다.

영화 '국제수사'에서 복서 출신 시골 형사 흥병수를 연기한 곽도원은 22일 열린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좀 모자라서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잘 안되는, 남들이 보기엔 답답한 인물"이라며 웃기려고 망가지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데 꼬이고 꼬여서 웃기는 진지한 코미디"라고 말했다.

영화는 난생처음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병수가 현지 조직이 설계한 범죄(셋업 범죄)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가 되고, 누명을 벗기



위해 현지 가이드이자 고향 후배와 수사에 나서는 이야기다.

곽도원은 "연극 할 때는 코믹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영화는 첫 단추를 고위공무원으로 하다 보니 그런 역할이 많이 들어왔다"며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어서 도전 아닌

도전을 했다"고 말했다.

졸지에 병수의 수사 파트너가 된 현지 가이드 만철 역을 맡아 함께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딴 김대명도 "삶이 아름다운 거구나,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경험이었다"고 고생담을 전했다.

김희원은 필리핀 범죄조직의 킬러 패트릭으로, 김상호는 필리핀 감옥에서 만난 죽마고우 용배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보통사람'(2017)의 김봉한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영화는 내달 개봉할 예정이다. mihee@yna.co.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안정환-이영표 뭉친 '안싸우면 다행이야' 단숨에 7%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02년 축구 월드컵의 '레전드'로 불리는 안정환과 이영표가 만나니 시청률도 화제성도 한 번에 제압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휴대전화와 전기도 통하지 않는 오지의 무인도에 사는 자연인을 만난 안정환과 이영표의 모습이 그려졌다. 처음 겪어보는 극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케미'(케미스트리, 조화)를 보여줘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두 사람이 자연인과 황도 생활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분당 최고 시청률 8.8%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황도, 안정환, 이영표 등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한층 더 열악해진 무인도 상황과 더불어 이영표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해설을 하던 당시 흥명보 감독에게 일침을 가해 일어났던 논란과 그 뒷이야기가 공개된다.

lisa@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인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말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5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목사님과 정 목사님(부부 목사님)께서 워싱턴 주로 떠나시고...

이 목사님과 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0년이 되었다. 아내인 정유상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남편인 이정승 목사님께서서는 유년주일학교를 담당하셨다. 이곳에 오셔서 예쁜 두 딸(다빛, 예빛)을 얻었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있던 터였다. 다빛이 유치원을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예빛이 이제 4살이 되었으니 두 아이를 보면서 세월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10년을 우리 교인들과 따뜻하고 정다운 인연으로 있었다. 조용하시고 온화하신 두 부부 목사님은 늘 삶으로 진실을 나눠주셨다.

특히 정 목사님은 <여성교회>의 행사에서 강연을 많이 해주셨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 수련회'가 지난 2019년에 9회를 맞았으니 참으로 긴 세월이다. 그 말간 영혼과 진실된 눈빛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 고요하게 스며들던 정 목사님이 벌써부터 그림다. 그 10여 년의 세월 속에 순간순간들이 모이고 쌓여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보통의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7여 년 정도면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 떠나시고 또 오시고 하는 일이

일반의 일이다. 물론, 부목사님으로 계셔서 이처럼 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의 나이로 보면 한 참 어린 막냇동생 같고 친정 조카 같은 분들이다. 그러나 어찌 그리도 생각이 깊고 어지신지 저절로 감동되어 말문을 놓고 만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신적으로 참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싶다. 기도 거리가 있거나 의논 거리가 있을 때면 늘 정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다. 때때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걱정과 염려로 함께 해주셨던 정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니 더욱더 고마운 마음 가득하다. 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눈빛으로도 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던가.

세상을 살면서 나이 들어 만난 친구들에게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던가. 다행히도 내게는 어릴 적 친구가 곁에 살아서 서로 바쁘니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돌이 자매처럼 의지처가 될 때가 많다. 그리고 어쩌면 정 목사님이 내게

멘토 같은 분이셨는지 모른다. 내가 제일 힘든 시간에 그분이 내 곁에 있었다는 생각을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야 더욱 깊이 깨달았다. 국적이나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정 목사님은 신학 공부 중 상담학을 하셔서 그런지 여성 그룹의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은 성도들에게 고요하지만 힘 있는 깊은 곳의 아픔을 끄집어내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 부부 목사님께서서는 참으로 어리석을 만큼 착하신 분들이셨다. 때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양보만 하시고 욕심 없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 두 분 목사님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깨우치곤 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있었을 무렵이었다. UMW(United Methodist Women)에서 '수제마스크 도네이션' 만들기가 시작되어 만든

물품들을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함께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이었다. 정 목사님과 이 목사님께서도 교회 뜰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셨었다. "집사님, 저희 7월 초에 워싱턴 주로 떠나요!!" 하신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말문이 막혔다. 물론,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두 목사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시게 되신 것이니 얼마나 축하해드릴 일이나 아니던가.

모두가 COVID-19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때가 아닌가. 10년을 함께 지내시던 두 분 목사님의 '송별 예배'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도 서운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집사님과 서 집사님 댁에서 열 명 안팎의 교회 여성교회 분들을 초대해주셨다. 물론, 집 밖에서의 '송별 모임'이었다. 집을 오픈해주시고 소중한 만남을 만들어주신 두 집사님께도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정승 목사님과 정유상 목사님과의 '송별식'으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가슴에 위로가 되었다. 정 목사님, 이 목사님 벌써 그림습니다!! ^ ^



한담객설閑談客說: 멈춤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렸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태어난다.’
(백무산, 정지의 힘)

한동안 모든게 멈춰있었다. 모두 바이러스 때문이다. 일터는 문을 닫았고, 모임은 취소되었다. 게다가 웬만한 상점은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덕분에 트래픽 문제는 훨씬 덜었고, 거리는 한결 한산했다. 마치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보였던 거다. 그렇다고 시계도 세월도 멈춰있던 아니다. 꽃도 멈춰있지는 않았다. 여전히 꽃은 피었고 꽃잎은 하얗게 이 시들어 떨어졌다. 자연의 질서

는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흘러간 거다. 서두르지도 늦장을 부리지도 않는다는 것.

봄부터 여름이면 곳곳에서 도로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서행은 물론 달리던 차를 자주 정지시켜야 한다. 스톱시인이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은 그 공사마저도 뜸한 듯 싶다. 모든게 멈춰 버린 모양이다. 아니 멈춤은 힘일 수도 있겠다.

바라건대, 잠시 멈춰고 정지했었다면 다시 힘차게 출발했으면 한다. 발전이다.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욥 37:4)

일본에선 줄서기와 질서가 일상화되었다던가. 모두 지진때문이고, 자연재해가 많아 그렇다는 거다. 질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줄서기, 국민학교에 들어갔을적이다. 차례차례를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들었다.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몫 했을 터. 차례를 지키는 것 뿐이라. 복도에서 뛰어 다니다 안되었다. 뛰다가 선생님이라

만날 적엔 급하게 멈춰야 했다. 급정거는 고난도高難度였으니 숙련된 기술도 필요했다.

줄서기가 소용없던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 시내버스를 탈 적이다. 승강장은 유명무실. 여유로운 승하차는 언감생심焉敢生心. 승강장 위치는 일정치 않았고, 내리고 탈수 있는 시간은 무척 짧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원하는 버스를 타는 일은 경쟁이었고, 경

주競走였다. 뽕박질 할 수밖에 없었고, 재빨리 버스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것도 버스가 만 원이면, 떠밀려서 올라설 수밖에. 간신히 버스에 밀려 올라서면, 안 내양이 소리쳐 외쳤다. 차문을 두드리며, 오라-이. 출발하라는 신호였다. 출발은 움직임이다. 움직임은 멈춤을 전제한다. 정지停止일 수도 있다.

올 여름에도 광화문엔 글판이 걸

2020 통일! 골든벨

통일 골든벨을 울려라! (통일문제 퀴즈대회)

일시 : 2020. 8. 29 (토)

시간 : 체크인 오전 9:00 / 대회시작 오전 10:00

장소 : 온라인 (via Zoom)

등록과 자세한 내용 : <http://bit.ly/nuacgoldenbellregister2020>

참가 대상 : 초, 중, 고 전체 학년 학생

참가신청/기본문제집 : 한글/영어 동시 사용

<http://bit.ly/nuacgoldenbell2020>

마감 날짜 : 8월 26일 (수)

자세한 문의 : 장인숙 준비위원장 (nuacgoldenbell2020@gmail.com)

김도윤 부회장 (kimdo01002@gmail.com / 413.345.2861)

수상 : 대상 1명 \$400

최우수상 3명 \$200

우수상 2명 \$100

장려상 5명 \$50

참가 상장 및 상품

최우수상은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뉘어 시상됩니다.

회장 : 한선우

준비위원 : 장인숙, 김도윤, 서영애, 윤미자, 고인수, 이기환, 남진병, 이무선, 허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김영철
삼성제일클리닉원장

어지럼증(Dizziness)

어지럼증은 일차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증상중의 하나로 평생 살면서 35%정도의 사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이중에 절반 정도가 증상이 심하여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

환자들이 내과에서 빈혈 검사를 했는데도 어지럼증의 원인을 못 찾았다고 종종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빈혈이 있을 때는 어지럼증보다는 전신무력감과 운동시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보통 먼저 오고 어지럼증은 빈혈이 아주 심할 때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신경과, 내과 의사들이 함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남자보다 여자에서 2배정도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빙빙도는 느낌, 현기증, 실신할 것 같은 느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멍하거나 어질어질한 느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환자들이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꼼꼼히 듣고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학적인 검사와 함께 병력 청취가 무엇보다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어지럼증이 매우 심하다고 심각한 뇌병변이 있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경미한 어지럼증이

라도 가볍게 봐서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말초성 어지럼증과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추성 어지럼증은 대뇌 소뇌 뇌간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어지럼증으로 MRI & MRA(뇌혈관검사) 등 자세한 뇌영상학적 검사, 뇌파검사 등이 필요하며 개인병원에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귀의 전정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며 이석증으로 알려진 양성 발작성 체위성 어지럼증(BPPV=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메니에르병(Meniere's disease), 편두통성 현훈(Migrainous vertigo)과 전정신경염(Vestibular neuritis)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은 다양한 치료를 통하여 수일 또는 수개월내에 치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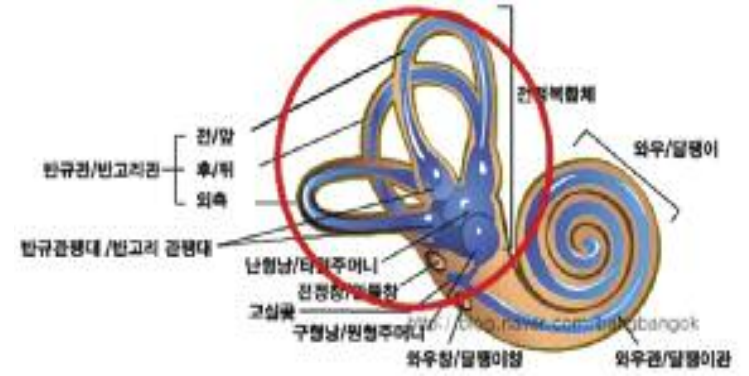
1)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BPPV)
병명에서 보듯이 환자들이 잠자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머리를 갑자기 돌릴 때 등 자세가 변할 때 머리가 빙빙도는 느낌의 현훈이 발생하고 오심, 구토 등이 동반되기도 하며 지속 시간은 길지 않아 보통 수초 후에 소실되지만 자세 변화에 의해 계속 발생한다. 발생 원인은 이석기관에서 떨어져 나간 이석이 귀의

세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성 현훈이 급격하게 발생하며 안진유발검사로 어느 쪽 반고리관에 이석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체위변경을 통해 이석을 제자리로 보내는 이석정복술을 한 두 차례 시행하면 대부분 증상이 사라진다. 전체 환자의 15%정도에서 1년 내에 재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D 부족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2) 메니에르병 (Meniere's disease)

1861년 프랑스의 의사 메니에르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고 어지럼증, 이명, 청력저하와 이(귀)충만감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내림프의 흡수장애로 인한 림프수종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지럼증은 20-30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되며 오심, 구토와 두통, 설사 등의 자율신경의 자극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절대 안정이 기본이며 림프수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염분제한, 충분한 수분섭취와 이뇨제 등의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며 80%의 환자는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3) 편두통성 어지럼증 (Mi-



grainous vertigo)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고 심한 편두통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후에 많이 생기고 카페인 함유식품, 알코올, 견과류 등의 음식물 섭취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유전적인 경향을 보이며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가 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뇌혈관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유발음식 등을 섭취하지 않으며 적당한 약물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4) 전정 신경염 (Vestibular neuritis)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되며 쉬는 상태에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구역 구토 등의 자율신경 실조증과 비틀거리는 보행장애가 같이 동반된다.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발생원인으로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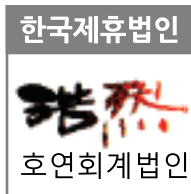
려져 있으며 대부분 1-2주안에 회복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정기능을 회복하는 운동요법(전정안반사, 전정척수반사)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하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어지럼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핑도는 등의 현기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의 환자가 안면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나 사지의 편마비 등을 동반하는 어지럼증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원장, 전문의 김영철
현) 삼성제일클리닉 원장
심사평가원 당뇨치료 우수병원 선정
심사평가원 고혈압치료 우수병원 선정
섬유대학교의과대 연수병원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현) 고려대학교 의과학교실 외래교수
대한통증의학회 통증유발점
주사치료과정 수료
대한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2020년도 정기 교사 연수회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주제: 학습자를 돕는 미래 교육 설계

부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즐거운 교사 양성

일시 : 7월 25일, 8월 1일

전체 강연(1)

'세계관과 초문화 정체성 (Transcultural Identity)' - 안성호 교수 (Gorden College)

1부 분반 강의

분반 강의 1-1 :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학급 운영과 온라인 수업'

- Ms. Jeniffer Park/Cunniff Elementary School

분반 강의 1-2 : '한국어 교사 인증제(ACTFL-NAKS) 연수 과정 내용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방법'

- 박현아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

분반 강의 1-3 : '미디어를 이용한 한국 문화 역사 강의'

- 김소희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

2부 분반 강의

분반 강의 2-1 : '온라인 수업 어떻게 진행할까? (초급)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Zoom 프로그램, 저학년 학생들과의 수업방법' - 이현경 강사/NAKS-NE 직전회장

분반 강의 2-2(1차) : '온라인 툴의 효과적 사용과 가상 수업의 모범사례'(Zoom을 중심으로)

- 이정설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2차 강의: 7월 26일 저녁 8시)

3부 분반 강의(2주에 걸쳐서 진행됨)

분반 강의 3-1 : '기초과정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Design Thinking(Zoom)'

- 황은하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

분반 강의 3-2 : '중/고급과정 Google Classr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디자인'

- 류민희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

분반 강의 3-3 : '초급 이상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퀴즐렛, 카훗, 스터디 코리안 수업 활용)

- 박미희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

8월 1일 교사 연수회 2주차

분반 강의 3-1(2) : '기초과정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Design Thinking(Zoom)'

- 황은하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

분반 강의 3-2(2) : '중/고급과정 Google Classr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디자인'

- 류민희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

분반 강의 3-3(2) : '초급 이상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퀴즐렛, 카훗, 스터디 코리안 수업 활용)

- 박미희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

전체 강연(2)

급속으로 변화하는 맥락 속의 교육 지향성의 재조정

(Realigning Our Education Directives in Rapid Contextual Change) - 장성철 목사(보스턴 장로교회)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86) 주식시장 투기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 할 겁니다.”

한국에서 한 투자자가 이렇게 언급했다. 투자로 소중한 돈을 잃고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을 언급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투자자들에게 1조6679억 원의 손실을 안긴 라임 사태는 금융 투자에 대한 믿음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임자산운용은 5년 만에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에 올랐지만, 작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에 이어 수익률 조작 등이 드러나면서 회사와 증권사 관계자, 뇌물을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0여 명이 구속됐다. 라임 사태 직전에 독일 국채 등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피해를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투자도 불거졌다. 연속해서 발생한 금융투자 사고들로 한국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2조5000억 원을 넘은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 역사(1986, 코스닥은 1996)는 길게 잡으면 30년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인덱스처럼 어떤 기준점이 되기에는 짧은 역사이다. 성숙하지 못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투자가 아니

라 투기판이 되기 쉽다. 투기판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사고파는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장기투자는 6개월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누군가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이지 않으며 반복되기 어려운 일이다.

주식이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인데 투자자 대부분은 주가가격 자체만을 중요시한다. 기업의 회계상황, 경영진, 생산하는 품목,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주식 배당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자가 단기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지만, 주식 대박이라는 유혹에 주식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기업이나 경제 신문도 단기투자를 부추긴다. “투자고수비법 多모았다”, “글로벌 경제, 금융 전망, 투자전략, 국내외 최고 전문가”, “해외주식 투자비법도 공개”, “투자고수 족집게 강의”, 등 자극적인 언어를 총동원한다. 이것은 작년 경제

신문으로 대표적인 한 신문사의 ‘머니쇼’ 기사 일부이다. 이런 특강을 듣고 투자하면 ‘고소득 투자자’ 가 바로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자 고수나 비법 그리고 전문가’ 는 없다. 투자전문가가 없는 이유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 고수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본인이 투자해서 돈 벌기 바쁜 시간에 왜 일반 사람에게 투자비법을 말하겠는가?

투자에 관한 정보는 무궁무진하지만 제대로 된 금융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점을 금융 산업은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사모펀드들이 비양심적으로 운용한 것은 물론이고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까지 마구잡이로 부실 펀드를 판매한 것이다. 은행들은 저금리로 줄어드는 예대마진을 투자 판매 수수료로 벌충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부실 펀드를 판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생산으로 이윤을 창출하면 기업이 투자한 투자자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사먹으면 소비로 끝나지만, 맥도널드의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투자 돈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영업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해서 부를 쌓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주식투자이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금이 불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고 언급한 것이다.

‘투자 대박’ 이란 없다. 한국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실패하는 투자를 반복하는 한인 동포들이 많이 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제대로 하는 투자인가?” 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5세 풍월주風月主 유신공庾信公(1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유신의 증조부 구충(구해, 구형)왕은 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9세손이다. 금관가야 겸지왕의 아들로 521년에 즉위하여 532년에 신라에 항복했다(법흥왕 19년). 삼국사기에는 그의 아들이 노종(奴宗, 무덕(武德), 무력(武力)으로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세 아들의 이름이 세종(世宗, 무도(茂刀, 무득(茂得)으로 나오는데 이름의 표기가 다르다(다를 뿐이다). 화랑세기에는 아들 무력(武力)과 무득(武得)이 나온다. 532년 구충왕의 항복으로 금관가야는 멸망했지만 왕에게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고 옛 금관국을 식읍으로 삼게 했다. 그리고 그 왕족은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편입되었다. 김무력이 김유신의 조부이다. 그는 신라에서 많은 무공을 세우고 벼슬이 각간의 위치에까지 올랐다. 당시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김무력은 지휘관으로 많은 활약을 했다(단양신라적성비). 그 후 553년에 아찬(6등급)의 위로서 신주(新州)의 군주(軍州)가 되었다. 다음해 관산성 전투에서는 백제의 성왕을 전사시키는 등 큰 전공을 거두었다. 그의 전공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뿐만 아니라 화랑세기에도 비교적 자세하게 전한다. 김무력은 아양(阿陽)공주를 아내

로 맞이하였다(그는 첫 부인 박씨가 있었다. 박씨는 법흥왕의 처제로 왕비 보도부인의 동생이다. 아마 일찍 죽었는지 후손이 없다). 아양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다. 그들은 아들 김서현을 낳았다. 김서현은 만명을 아내로 맞아 신라의 대영걸 김유신과 19세 풍월주 김흠순 그리고 세 딸을 두었다. 차녀 문희는 문명왕후(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비)가 되었고, 장녀 보희는 영창부인으로 태종무열왕의 후궁이 되었다. 삼녀 정희의 기록은 거의 없다. 이어지는 김유신의 세계(世系, 시조 수로왕에 왕(首露)靑丘王부터 본다.

[금관가야는 수로왕에왕에서 비롯했는데 황룡국(黃龍國)의 여자인 황옥(黃玉)을 아내로 맞아 거등(居登)을 낳았다. 거등은 천부경(泉府卿) 신보(申輔)의 딸 모정(募貞)을 아내로 맞아 마품(馬品)을 낳았다. 마품은 중정(中正) 조광(趙光)의 손녀 호구(好仇)를 아내로 맞아 거질미(居叱彌)를 낳았다. 거질미는 아궁(阿躬) 아간의 손녀 아지(阿志)를 아내로 맞아 이품(伊品)을 낳았다. 이품은 사농(司農) 국충(克忠)의 딸 정신(正信)을 아내로 맞아 좌지(坐知)를 낳았다. 좌지는 색을 좋아하여 각국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왕후로 삼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령(道寧) 아찬의 딸 복수(福壽)를 보내어 아들이 취희(吹希)를 낳았다. 좌지가 크게 기뻐하여 정후(正后)로 삼았다. 금관에서 우리나라 여자를 왕후

로 삼는 것이 이에서 비롯했다. 취희가 왕위에 오르자 복수는 태후로서 집정을 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등용했다. 금관인 또한 우리나라에 많이 왔으며 사이 좋게 친한 관계가 점점 깊어졌다. 취희는 우리나라 진사(進思) 각간의 딸 인덕(仁德)을 아내로 맞아 질지를 낳았는데, 곧 유신공의 5세조이다.]

김유신의 시조이자 가야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탄생설화를 삼국유사(권2, 기이, 가락국기)에서 간추려 보면, “천지개벽 후에 이 땅에는 아직 나라로 부르는 칭호가 없고 역시 임금이나 신하라고 부르는 칭호도 없었다. 다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의 구간이 있었고 이들이 수장이 되어 백성들을 통솔하였는데 1백호 7만5천명이었다. 사람들은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일구어 먹었다.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서기42년) 3월에 사는 곳의 북쪽 구지(龜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 23백명이 거기에 모이니, 사람 소리 같기는 한데 모습이 없었다. “여기 누가 있는냐?” 구간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는 구지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서 새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흙을 파서 집을 지으며 노래하고 춤

을 추게 하였다(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라~). 그러면 곧 하늘에서 대왕을 맞으리라 했다. 구간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따라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땅에 닿았고 줄 끝을 보니 붉은 단이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쌓여 있었다.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했다. 잠시 후 아도간이 집으로 가져와 탐(榻) 위에 두었다. 12일이 지난 그 이튿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합을 열어보니 여섯 개의 알이 모두 어린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심히 컸으며 곧 평상(平床)에 앉았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며 극진히 공경했다. 나날이 자라 열 며칠이 지나자 키가 9척(尺)은 으나라 천(天)왕)과 같고, 얼굴이 용안(龍安)은 한나라 고조와 같았으며, 눈썹이 팔채(八采)은 당나라 요임금과 같았고, 겹눈(重目)을 가짐은 우리나라 순임금과 같았다. 그 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하고, 혹은 수릉이라 했다. 나라를 대가야 혹은 가락국이 라고 하니 곧 육가야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향후 10년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교통, 교육 등에 배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세요.

지금 인터넷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NAMU •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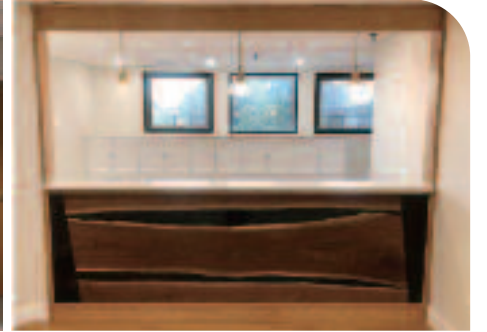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국궁 양궁 연습

국궁 양궁 연습에 초대합니다

코비드 19로 위축된 우리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Open Air 로 초대 합니다.
현재는 Session 마다 최대 5 가족만 함께 활 쏘며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서로 3 meter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활을 쏘며, 활과 화살을 사용 전후
소독해서 사용합니다.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6월 1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강습과 연습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후 2:00- 3:30, 3:30-5:00 (토1, 토2, 일1, 일2)
원하는 Session을 예약하세요. 활과 화살을 제공하며,
강습과 연습은 모두 무료입니다.

10분전 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예약: taewon.jin@Gmail.com, 603-205-6679
주관: KAYP Youth program, director Taewon Jin

